



## 동아시아의 역사전쟁 넘어서기와 평화공존의 길찾기\*

Tessa Morris-Suzuki, Morris Low, Leonid Petrov and Timothy Y. Tsu, et al. 2013.  
*East Asia Beyond the History Wars: Confronting the Ghosts of Violence*. New  
York: Routledge.

안청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아시아연구소

21세기에 들어서고 15년이 지났다.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학계를 풍미한 핵심적 연구 주제는 단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담론이다. 따라서 역사 분쟁 문제를 다룬 책과 논문들도 매우 많다. 이 글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다루어 종합·정리하는 한편, 여러 각도에서 화해를 모색하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데 길잡이로 평가될 만한 저서들 중에 위의 책을 골라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종합 소개하는 글로 준비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전승 연합국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당면했던 과제는 역시 영토 문제와 국경선 확정이었다. 동아시아 영토 문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을 정하는 문제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영토들에 대한 귀속권을 다시 반환시키는 일이 주요 과제였다. 그 중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선 문제는 오랜 시간 갈등과 경합을 벌이기는 했지만, 두 나라 사이에 5년에 걸친 비밀 교섭과 절충을 거쳐 1991년 5월에 중·러 국경선협정으로 합의·공포되었다. 2004에는 이 협정을 보완하는 부속 협정이 러시아의

\* 이 글은 신간으로 선정된 저작물의 '신간소개' 글로 쓰여진 것임을 밝힌다.

두마(Дума)와 중국 인민위원회에 의해 조인됨으로써 매듭지어졌다. 서장에 이어 1장 ‘동아시아 영토 문제와 국경선 대화’ 편에서 이 책의 필자들은, 40여 년의 갈등 관계로 점철되었던 중·러 간 국경선 확정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용인해 주며, 화해적 대화로 결실을 이루어낸 이 협정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득이 되고 안정된 평화를 가져오는 새 선린 관계와 협력·공존 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만한 사례라고 보았다.<sup>1</sup>

2장에서는 아직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이나 역사 전쟁을 다루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와 점령지의 귀속 및 반환 문제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종전 조약 또는 그 후에 일본과 구식민지나 교전 국가들 간의 개별적 양자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방식에 떠맡기는 등의 미봉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역사 전쟁 담론의 범람과 갈등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식민지 영토 반환 문제는 해양 분쟁과 도서 귀속 문제, 침략 인정 및 사과 문제, 역사 교육과 교과서 파동, 강제 징용과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보상 문제,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수정주의, 평화헌법 개정 문제 등과 겹쳐지며 그 해결책은 지금까지도 미루어져 온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분단 70년이 되도록 국토 분단의 비극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역사 갈등 문제가 더욱 민감하고 복잡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남북한의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은 해방과 분단, 건국과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험난한 위기와 미로를 헤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열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서로 적대 관계와 생존 경쟁의 현실 속에서 시작된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은 처음부터 정치적 필요와 정치 체제의 현실과 환경에 따라 수립·발전·진화·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 70년간 남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서는 두 개의 역사관을 채용한 분단 체제로 나뉘어져서 각자 다른 역사의 경로를 견지해 왔다. 민족사와 정체(polity)의 정통성을 신성시하며 한 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는 남북한의 경우는 나라 안팎으로 역사 전쟁을

<sup>1</sup> Tessa Morris-Suzuki, Morris Low, Leonid Petrov and Timothy Y. Tsu, et al., *East Asia Beyond the History Wars: Confronting the Ghosts of Violence*(2013. New York: Routledge), 31-33, 56-57. 아래부터는 Morris-Suzuki et al.(2013)으로 표기함.

별이고 있는 특별한 사례이기도 하다(Morris-Suzuki et al., 2013: 44-45).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만난 2000년 6월(13~15일)의 역사적인 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선언 안에는 민족의 역사관에 대한 화해를 위해 학자단과 대학들을 상호 교환·방문하도록 한다는 합의도 있었다. 이후 남북한 학자들이 교차방문하여 몇 차례 학술발표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고대사 자료 전시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유익한 학술협력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듯했다. 이들은 한국 역사의 고대사와 중세사 부분에 대하여는 큰 논쟁과 이의 없이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Morris-Suzuki et al., 2013: 45-47). 그러나 정작 1945년 이후의 역사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쟁점이 많아 결국 이와 관계된 주제들을 토의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후 남북한 간에 역사관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별 진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처럼 분단으로 공통된 역사관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은 영토권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 및 한반도 경계 지역의 역사적 연고권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마저 놓치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간도 영유권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속해 있는 녹둔도(鹿屯島)를 들 수 있다(Morris-Suzuki, et. al., 2013: 34-35; Hasegawa and Kazuhiko, 2008: 228).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후에 간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유권을 이른바 간도협약(1909)으로 청나라에 넘겨주었으나 당시 조선으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1945년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데 이어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간도와 인접해 있지도 않은 데다, 북한 정권은 중국에게 간도 영유권을 인정해 주기까지 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간도 지방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한국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sup>2</sup>

연해주는 원래 청나라 영토였으나 1860년 북경협약에 의해 당시 러시아제국

<sup>2</sup> 한반도 통일 시에는 이 문제가 한·중 간 잠재적 문제꺼리로 비화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이 청으로부터 이양 받은 땅이다. 현재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에 편입되어 있는 녹둔도는 조선(朝鮮)이 1587년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자주 침범한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곳에 국경수비대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영토로 관리해 오던 곳이다.<sup>3</sup> 1884년 한·러 수호통상조약 이후 조선 정부는 누차에 걸쳐 러시아 제국에게 녹둔도 반환을 요청했지만<sup>4</sup> 러시아 측은 이를 거절했다. 조선은 청나라(중국)를 통해서도 이 점에 대한 시정과 중재를 요구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49년에 설립된 북한 정권은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경제 원조와 군사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 간에는 ‘국경선 분쟁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동북아의 한·중·일·러 등이 협력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되었던 과거 역사의 후유증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일은 편협한 민족사관과 시대착오적 국가주의 이론을 넘어 해묵은 역사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새로운 역사 화해를 위한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는 길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와 역사를 서로 달리하는 동아시아 제국은 전 세기의 전쟁 망령과 작별하고, 새로운 대화를 모색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장에 함의되어 있다.

3장에서는 영화 매체에 나타난 중일전쟁 역사담론의 특징과 변화 추세에 대

<sup>3</sup> 현재 중국 만주 동북부와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북한 북쪽 지역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진 곳이기도 하다.

<sup>4</sup>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도 총독부는 러시아가 일본 식민지 조선의 녹둔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했으나, 이는 조선 정부가 취약하고 영토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방치되었다는 자세로 미루어 왔다. 해방 후의 혼란기와 한국전쟁 이후에는 1948년에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 합의된 상태가 그대로 지금까지 유효한 국경 경계선으로 인정되어 왔다. 다만 두만강 유역 수량 변화와 지형 변모에 따라서 북·러 국경은 2000~2003년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경선 위치가 약간씩 달라지는 조정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북경협약의 효력은 오늘날까지도 그 원형이 지속되어 옛 녹둔도 지대는 러시아령으로 편입되어 있다. 김일성이 형제 공산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을 일소하고자 러시아에 넘긴 이 땅에 대해 한국은 아직도 러시아가 32km<sup>2</sup>의 한국 땅을 오래 전부터 불법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하여 분석했다. 이 장에는 ‘영화로 보는 제2차 중일전쟁’이란 부제까지 달고 마치 중국과 일본이 영화 매체를 통해 현재까지도 전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에서는 지난 70년 동안의 ‘제2차 중일전쟁’ 시기(1937~1945)에 대하여 중국의 영화매체가 대 일본 이미지를 담아내는 특징을 3기로 대별하여 그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한다. 초창기(1949)부터 문화혁명기(1966~1976)까지 중국 영화에 나타난 일본과의 전쟁관은 일본인 ‘악마’와 맞서 싸운 중국인 ‘천사들’ 사이의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대결과 흑백논리로 일관한다. 이 시기 중국의 전쟁 영화는 사회주의 중국의 반일 전쟁 승리 담론으로 일관하여 ‘영웅적인’ 중국 공산당 전사들이 ‘사악한’ 일제 잔당들을 물리치는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몇몇 영화들에서 양국 간의 가족의 만남, 남녀 교제 등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허물면서, 과거 전쟁사에 대해 화해적인 담론을 시도 하는 작품들이 일부 소개되기도 했다. 양국의 정치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영화 매체로 재현되는 중·일 역사 갈등의 전개 방식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해 나아간다는 사실도 물론 지적되었다. 최근에는 중국 사회와 현대 중국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허용되는 시네마틱 시도가 등장하면서 중국 사회에 대한 성찰적 자기비판과 반대로 허용되어 다양성과 개방성이 진전되고 있는 등 과거에 비해 중국의 전쟁영화 담론에도 발전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영화계의 변화가 일본에 대해 객관적, 수용적 관점으로 다소 이동해가는 조짐들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존의 반일적 기조와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이 책은 내다보았다. 특히 1937년의 난징 대학살, 731부대의 생화학전쟁용 인체실험 등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중국인들의 뇌리에 뿌리 깊이 각인되어 그 참혹성이 영화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개방성과 다양성, 탈근대화 추세로 중국 영화의 전쟁 담론이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으나,<sup>5</sup> 사회주의적 통제와 국

<sup>5</sup> 북경의 민권주의 작가 유지예(Yu-Jie) 등은 중국인들이 일본과의 전쟁에 대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 무조건 용서해야 하며, 일본을 탓하기 전에 먼저 중국 정부가 최근세사에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하고 인민을 괴롭히며, 역사를 자의로 조작했는가에 대하여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Yu Jie(trnas. by Guo), "The Anti-Japanese Resistance War,

가 검열을 넘어서는 대 일본 기조는 일본이 진정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로 역사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3장의 결론이다.

제4장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의한 역사 연구와 역사 화해 운동 사례를 분석했다. 국가나 정부 차원이 아닌 종교, 직능 조직, 또는 시민사회 같은 비정부 조직들이 때때로 사회 또는 공동체의 집단기억 담론에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명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홋카이도(北海道) 소라치(Sorachi·空知) 시의 민주 시민사회가 주도해 온 ‘동아시아 협력 워크숍(workshop)’의 활동을 사례연구로 다루면서, 그 내용을 ‘변경시대 시민들이 강제노역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화해의 편지’라는 부 제목으로 기술했다. 이 글 속에는 일본의 한 지역 공동체가 홋카이도에 강제노역으로 끌려온 한국인 희생영령(英靈)들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빚진 마음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화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진솔한 현장연구 기록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홋카이도는 일본 군국주의 건설의 변방으로서 슬픔과 우여곡절의 역사를 거친 땅이다. 일본 정부는 19세기 중반에 본토인들을 대거 이곳으로 이주시켜 원주민인 아이누(Ainu) 족의 토지를 강제로 취하고, 이곳을 메이지 근대화의 첫 식민지형 전초기지(first settler colony)로 삼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 본토에서는 범죄자를 노동자로 부릴 수 있는 제도가 없어지자, 홋카이도로 도망자, 범법자, 유랑민들을 데려와 이들에게 ‘문어냄비(tako beya)’로 불린 감금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 후 일본은 태평양전쟁 준비를 시작하면서 한국 등의 식민지로부터 실어 온 징용 노동자들로 부족한 노예 노동력을 대체했다. 소라치의 민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 차원의 역사 연구 단체는<sup>6</sup>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홋카이도로 강제 이송되어 노예처럼 혹독하게 이 지역의 담

Chinese Patriotism and Free Speech. How Can We Forgive Japan?’ *Japan Focus*, 2, February 2008, <http://www.japanfocus.org/-Yu-Jie/2654>(Morris Suzuki, et. al., 2013: 83, 86 재인용).

<sup>6</sup> 소라치 주민역사포럼(Sorachi People’s History Forum)은 1960~1970년대 일본 지역운동으로서 지방사와 역사 유물들을 발굴하여 평화 박물관 설립 운동 등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활동에 자극받고, 각국의 인권위원회 제도 창설 등을 모델로 삼아, 1990~2000년대에는 전쟁 화해운동, 원폭과 강제노역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운동과 침략전쟁 책임 문제 해소 및 역사 화해 운동 등을 지속했던 지역사회 주도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과 발전소 건설, 석탄 광산에서 노역을 하다 죽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통한(痛恨)을 보듬어 치유하며,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시민운동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주민역사포럼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홋카이도로 강제 송환되어 온 한국인은 삿포로의 지하 군사시설 건립 노동자로 3,000명, 미카사(三笠) 지역 광산 노동자로 9,182명, 유바리(夕張) 지역 석탄 광산으로 17,852명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홋카이도 인근지역으로 이송되어 온 한국인도 1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제는 징용법을 수차례 - 1939년, 1942년, 1944년 등 - 에 걸쳐 공포하여 식민지 조선 땅 곳곳에서 동원 모집한 약 70만 명의 한국인 징병들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그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홋카이도 일대에 투입되어 각종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전쟁 말기에 일제는 다수의 중국인들과 연합국 포로들까지도 일본으로 끌어다 필요한 노동력으로 강제투입했다.

소라치 시민그룹들은 동아시아 협력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전시 폭력 범죄 죄목에 대하여 유적 발굴과 증거들을 밝혀내고 전쟁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유적 발굴 소개 및 공개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화해를 모색하는 한·일 시민사회 운동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 명부도, 무덤 표지도 없이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묻혀 있는 곳은 물론, 산등성이 등 외진 곳에 버려진 유해들을 찾아서 이들이 사망 당시 전시 노동자로 끌려와 광산 노역이나 건설 노동 등에 동원된 인원이었음을 밝혀냈다.
- 시민들이 발굴한 문서 연구는 사찰문서 분석, 화장 및 공동묘지 조성 관련 허가 서류 등을 토대로 향토 사학자들과 협력하여 홋카이도 지역의 댐, 발전소, 철도 공사장 등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각종 이야기들을 발굴했다.
- 발굴된 상세정보와 인적 사항에 더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1977~1983년까지 주인 없는 무덤들을 발굴하여 사찰에 안치하고 여러 경로로 일본 또는 한국에 있는 그들의 옛 주소나 연고지에 연락하여 친척이나 가족에게 찾아주는 일을 수행했다.

동아시아 협력 워크숍의 사례가 갖는 시민사회 운동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들 시민사회 활동은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사죄,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엄중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 억울하게 죽은 전시 폭력 희생자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이들의 죽음과 생애 동안의 유품과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예우하는 일은 국적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일본인 노역자들의 죽음과 한국인 강제 노역자들의 죽음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들 영혼의 화해를 돕고,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인정해 주고 공유하는 일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의미도 갖는다.
- 작은 지역사회 사례이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한 데 모여 과거의 잘못과 비극을 공유·공감하면서 역사의 광풍에 휩쓸렸던 폭력의 세기를 청산하고, 미래의 상호 협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5장에서는 도쿄에 있는 전쟁 관련 3대 박물관들 - 야스쿠니 신사의 유슈칸(Yushukan·遊就館), 쇼와칸(Showakan·昭和館), 쇼케이칸(Shokeikan·承繼館) - 의 전시물 전시(展示) 구성과 유물들 속에서 드러나는 전쟁과 기억, 책임과 관련 일본 역사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속내와 전통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일본의 전쟁 관련 박물관들은 전시 재현물과 역사 담론들이 초기에는 군국주의적, 남성 우위론적 문화 담론에 경도되어 있었다. 1999년에 문을 연 국립박물관인 쇼와칸이 전쟁 과정에서 피해자가 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전시를 시작으로, 2006년 3월에 개관된 전상병사 자료관인 쇼케이칸이 상이군인을 비롯한 전쟁참여 군대 처리 및 이들을 기리는 전시가 뒤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야스쿠니 신사의 보물관인 유슈칸의 경우처럼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군국주의 대동아전쟁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아시아 침략전쟁을 아시아를 해방시킨 전쟁으로 미화하려는 의도와 가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된 유적 속에 기록으로 남긴 담론에는 전쟁에서 일본인 군대,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의 흔적들



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역사 연구자들은 박물관의 구성물과 전시가 국가의 비뚤어진 역사의 프레임으로 짜여 있어 전쟁 중은 물론 전후에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진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측면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책임을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일본이 우파 민족주의에 편향되어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역사 왜곡과 갈등으로 치닫는 실책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하나는 전쟁 책임과 역사 왜곡의 기억들에 대한 관심을 국경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국민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널리 공개하고 알리는 일이다. 세계 시민들이 잘잘못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평화와 화해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이 전쟁박물관, 평화공원, 승리기념관 등을 만들어 공공 정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6장에서는 5장에서 다룬 전쟁 관련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공 정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장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갈등(unfinished conflict)에 대한 기억’이며, 부제에는 ‘아직도 논쟁 중인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논쟁 중인 갈등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한국전쟁 관련 전시관들의 전시물들을 비교·연구하기 위해 네 나라 - 한국, 북한, 중국, 호주 - 를 직접 찾아가는 연구 여행의 기록으로 구성했다.

한국전쟁에서 서로 싸웠거나 참여했던 위의 네 나라에 있는 한국전쟁 관련 국립 시설들에서 전쟁과 관련된 전시물에 재현된 기억, 책임, 망각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네 곳의 전시관은 한국의 서울 용산에 세워진 ‘전쟁기념관’, 북한의 평양 중심지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국 단둥(丹東)시에 있는 ‘항미원조전쟁기념관’, 호주 캔버라(Canberra)의 국립전쟁기념관 안에 있는 ‘한국전쟁관련전시관’이다. 이 장에서 소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네 나라들이 모두 한국전쟁에 대하여 각자 자국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은 숨기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하거나 과장한다. 둘째, 네 곳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여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칭송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사례로 조사된 네 박물관들은 각자 자국의 국가 이익과 이념에 반하

는 담론의 범위를 넘어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현물에서 제외하거나 숨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에게는 전시에 재현된 자료와 의도적 또는 기타 이유로 밝혀지지 않는 의미에 대하여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예로서, 이 장의 필자인 모리스 스텔키가 얼마 전에 서울과 평양을 여행하며 남북한의 한국전쟁에 대한 두 기념관을 돌아본 소감을 최근 출간된 그의 저서에 기술한 바 있다(테사 모리스 스텔키, 2015: 199, 245-246). 저자는 수치상으로 보면 1952년 8월 29일의 엄청난 폭격으로 하루에 평양시민 약 6천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평양에 머무는 동안 그 어디에서도 그런 아픔에 대한 흔적을 기록으로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적고 있다.<sup>7</sup>

여기서 유의할 점은 6장의 목적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입장과 담론들을 비교하여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박물관에서는 숨겨지거나 옹바르지 않게 표현된 부분을 드러내어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폭력에 대해서 재고하고 더욱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과 지식을 공유·교환·소통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에서 잘못된 것들,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모순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협력하고 대화하여 이 방면 연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7장에서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상황을 재현해 보이는데 최근의 사진 예술과 미술창작물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에 대하여 연구했다. 오랫동안 억압되거나 잊혀 잡자던 기억 담론을 드러내어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데는 감성과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예술품이나 음악, 무용 등의 예술적 행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많은 일본인들은 전통적 방식의 축제나 기념행사에 식상해 하

<sup>7</sup> 1952년 7월 11일, 미국, 영국, 호주, 남한의 전투기들이 1254회 출격하여 2만 3000갤런의 네이팜탄을 평양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쏟아 부었고, 출격 횟수가 1403회였던 1952년 8월 29일에는 대략 6000명의 평양시민이 사망했다. 며칠 뒤 평양 폭격이 끝나자 미 사령부는 공격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시에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 당시, 도시의 건물 80퍼센트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Steven Hugh Lee, *The Korean War*(Halow. UK: Pearson Education, 2001: 88; Springer, 2003: 20; 테사 모리스 스텔키, 2015: 201에서 재인용).

고 관심이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원폭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연로했거나 사망한데다, 젊은 세대들은 늘 듣고 보아온 원폭 피해나 공포의 기억으로부터 점차 관심이 멀어졌다. 따라서 7장에서는 예술적 표현 매체들을 통하여 원폭에 대한 기억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창의적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과 공감으로 이끌어 핵 없는 평화, 대화와 화해, 비폭력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는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라, 기억피로 증에 대한 새로운 창의적 처방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장에서는 역사 갈등의 변방 지대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던 개인 수준의 사례들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과 폭력의 한가운데로 휘말려 들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그 정체성을 확인 받지 못한 희생자들 중에서 특히 강제로 전장에 끌려 나가 죽음과 망각의 계곡에 묻혀 있던 자살특공대원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그들의 일화를 더듬어 검토해 본 연구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휩쓸려 당시 자살특공대인 가미가제 부대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탁경현(Tak Gyeong-hyeon)과 박인조(Pak In-jo)라는 두 한국인의 사례를 자세히 추적·소개함으로써 지금도 진행형인 한일 간의 역사 갈등과 화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숫자를 정확히 알 방도는 없지만<sup>8</sup> 상당수의 자살특공대 비행사들이 전쟁 말기에 전장으로 끌려갔다. 식민지였던 한국인의 지원 사례는 최근까지 일본의 우파 진영 문학과 영화매체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 한 예로는 보수 우파 민족주의의 기수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동경도지사가 시나리오 작가와 제작자로 참여한 일본 영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의 배역 중에는 한국인 가미가제 특공대 지원자 탁경현 씨가 등장한다. 이 영화는 일본이 아시아의 해방자로서 그 식민지들로부터 아시아 지역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온 주인공으로 칭송받는다라는 내용과 구성을 바탕으로 했다. 그리고 탁 씨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큰 공을 세우며 애국적 동지애를 발휘한

<sup>8</sup> 이 책에서 저자(Tessa Morris-Suzuki)는 전쟁 막바지 전투 중에 사망한 자살폭격기 한국인 조종사의 희생자 수를 '최하 16명'이라고 명기했다(166쪽).

주역으로 그려졌다.

일본인 우파 진영 작가 히데아키 가세(Hideaki Kase)는 미국인 악셀(A. Axell)과 공동으로 펴낸 저서<sup>9</sup>에 근거해서 2001년에 일본 영화 〈For Those We Love〉의 제작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일본이 아시아인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일어난 착한 나라로 해석되어 있다. 이 저서에는 한국인 자살특공대원들의 이야기도 한 장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주로 탁경현을 내세워 그의 죽음과 관련된 행적과 애국적 행동을 칭송하며 ‘영웅시’하고 있다. 탁경현 씨의 행적은 2007년에 나온 일본 영화 〈호타루(The Firefly)〉에도 소개되었는데, 일본 측은 이 영화와 탁 씨에 대한 영화적 담론 속에서 탁 씨(일본명 Kanayama)를 한국과 일본 간에 화해의 수단으로 녹여내려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sup>10</sup> 탁경현은 1920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다가, 1945년 5월에 가미가제 자살특공대 조종사로 전사한 사람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징용이나 부역자로 동원되어간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한국 내외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전쟁 당시 식민 당국의 권유를 옹호하거나, 동원 회유에 응했거나 혹은 강제로 합류했던 한국인들 중 대다수는 하층민들이었기에 이들을 변절자나 자발적 식민주의 옹호론자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한국인 자살특공부대 지원자들에 대해 상반된 담론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지적한다.<sup>11</sup>

일본 측이 그려내는 순교자적 그림에 대해서 ‘과잉단순성’의 오류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인 가미가제 희생자들을 다룬 일본의 담론과 영화매체는 전후 일본의 식민지 역사를 과도하게 포장된 자국 중심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국가주의적 편향성이 강하다. 따라서 개인사의 미시경험을 역사 전쟁의 화해로 접근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게 마련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sup>9</sup> Emiko Ohnuki-Tierney, *Kamikaze, Japan's Suicide Gods*, London: Longman, 2002: 186, in Morris-Suzuki, et. al., 2013에서 인용.

<sup>10</sup> 영화 속에서는 전후 12년이 지나 탁경현이 사랑했던 연인이 탁 씨의 일본인 생존 동료로 만나 결혼한 후, 탁 씨의 한국인 가족을 찾아 상봉하면서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고, 한일 두 가족 간에 화해하는 플롯으로 끝난다.

<sup>11</sup> Emiko Ohnuki-Tierney, *Kamikaze, Japan's Suicide Gods*, Chapter 5. Morris-Suzuki et al., 2013: 187 재인용.

침묵을 망각의 세계로 물어버리기보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끌어내는 작업을 열어놓고 반복하는 일은 갈등의 해소와 화해 모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 장에서 암시하고 있다.

탁경현에 이어 이 장에서는 박인조의 사례를 싣고 있다. 아버지 대에 일본으로 이민 와서 가나자와에 살고 있던 박인조는 1943년 10월에 육군 비행사 훈련 과정에 지원하여 입교허락을 받았다. 박인조는 우편비행기 민간인 조종사가 되고자 했으나 조선인으로서의 불가한 직종인 것을 알고 일본 군대에 자원입대한다. 박은 1945년 3월 자살특공대 조종사로 지원했다. 박인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격하지는 못했다. 전쟁 막바지로 갈수록 비행기가 낡고 유류 부족으로 비행을 할 수가 없었다. 군부는 점점 더 많은 조종사들이 임무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자 신부료(Shinburyo)라는 수용소 감옥에 임무 이탈자들을 구금하여 처벌하거나 재교육을 시켜 이들을 다시 죽음의 전장으로 내보내고자 했다. 종전이 되기까지 육군의 수용소 감옥에는 자살특공대 조종사 80명이 최후까지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Morris-Suzuki et al., 2013: 180). 종전 후 박인조는 가나자와로 다시 돌아가 한때 한국 교민단에 가입하여 전후 재일본 한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종사하고, 윤봉길 의사의 유해 발굴과 유적 보호에 헌신하며 이 일을 그의 평생 업으로 삼았다. 그가 가나자와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역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도 박이 과거 일본군 자살특공대 가미가제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그의 행적을 연구·정리한 필자(Morris-Suzuki et al., 2013: 176)는 전한다.

전승 연합국가들에 의한 일본점령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1952년에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 식민지 국적자들의 일본 국적을 무효화했다. 일본적 역사관의 주안점은 역사의 기억을 털어내기 위해 현대사에 대한 망각의 정치담론이 지배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 가미가제 특공 부대원들, 윤 의사처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은 각기 특수한 위치에서 모두 그 삶의 결정적 순간에 각자에게 부여된 다른 선택에 따라 후일 영웅으로 칭송되거나 애국자와 매국노, 또는 변절자로 분류되고, 아니면 그냥 잊히는 범주의 희생자로 남게 된다. 따라서 역사 연구자들은 이들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복합성과 도덕적 설명을 내릴 것인가

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5년 2월 9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9일

## 참고문헌

- 아라이 신이치 저. 김태웅 옮김. 2006. 『역사화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서울: M&B.
- 와다 하루키 저. 임경택 옮김. 2013.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 사계절.
- 테사 모리스 스즈키 저. 서미석 옮김. 2015. 『길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 서울: 현실문화.
- Hasegawa, Tsuyoshi and Togo Kazuhiko, eds. 2008. *East Asia's Haunted Present: Historical Memories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WestPort, CT, Londo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Kim, Mikyoung and Barry Schwartz, eds. 2010. *Northeast Asia's Difficult Past: Essays in Collective Memory*.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pringer, Chris. 2003. *Pyongyang: The Hidde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Capital*. Budapest: Entente.